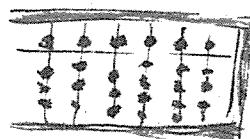


취미건강

최 경 일

- 現 김포공항 안내과
근무.
- 住所 : 관악구 신림
2동
- 전화 : 877-7900



빌리아드를 치면서

우리가 살고있는 오늘날에는 많은 오락시설과 운동기구들이 보편화 되어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점점 발전함에 있어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조깅, 배드민턴, 탁구, 축구, 야구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빌리아드(당구) ?

당구는 중·근세 시대의 영국에서 유래된 매우 수준높은 오락과 운동을 결합한 놀이로서 당시에는 게임규칙이나 게임매너등이 매우 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것은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전하여졌다.

1970년대부터 서서히 블루를 이루기 시작하여 지금에 와서는 모든 성인 남성들에게 대중화된 건전오락 스포츠중

의 하나가 바로 빌리아드(당구) 가 아닌가 싶다.

빌리아드는 다른 여러운동과는 달리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고 가장 신사적인 멋을 지닌 성인 오락이라는 점에서 두터운 지성팬 층을 가지고 있다.

바둑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새롭고 멋진 수와 기술이 점점 늘 뿐만 아니라 두뇌의 회전과 마음의 수양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운동보다는 사실 오락성을 띤 당구는 타 종목보다는 국제게임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다든가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사이의 빌리아드(당구)협회를 통한 친선게임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의 고점자들은 경기를 통해 우애를 다질뿐더러 당구가 얼마나 진지하고 정신집중을 요하는 것인가를 또한 예술에 가까운 멋진 수를 대중들에게 보여주니 대중들로 하여금 매력을 아니 끓수 없는 것이다.

빌리아드는 직장동료간이나 또는 친구들과 같이 여러가지 방법의 게임을 통하여 즐길수 있는 것은 물론 혼자서도 당구장을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게임을 가질수 있으며 피로를 푸는데도 여간 좋지가 않다.

어떤 이들은 당구가 무슨 운동이며 전전한 오락이냐 하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당구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이다.

점차적으로 당구인구가 늘어나고 대중 오락으로서 활성화되고 즐기는 것은 좋지만 당구인들이 자각해야할 문제는 당구는 전전오락운동으로 즐기는 것에 만족을 해야지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구를 친지도 어언 7,8년이 됐는데 치면서 내가 느낀 당구의 좋은점이라면 두뇌의 회전을 발전시켜주고 생각을 깊게 만들어 주며 판단력을 길러주기도 한다.

또한 잡념을 떨쳐버림은 물론 직장인들은 그날에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쟁어버릴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하겠다.

한가지 단점이라면 아직은 여성들에 게까지 대중성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남성들에게만 극한된 오락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 당구장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자들을 위해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할 것이며 시설이나 위생 문제에도 신경을 써서 당구장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즐길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